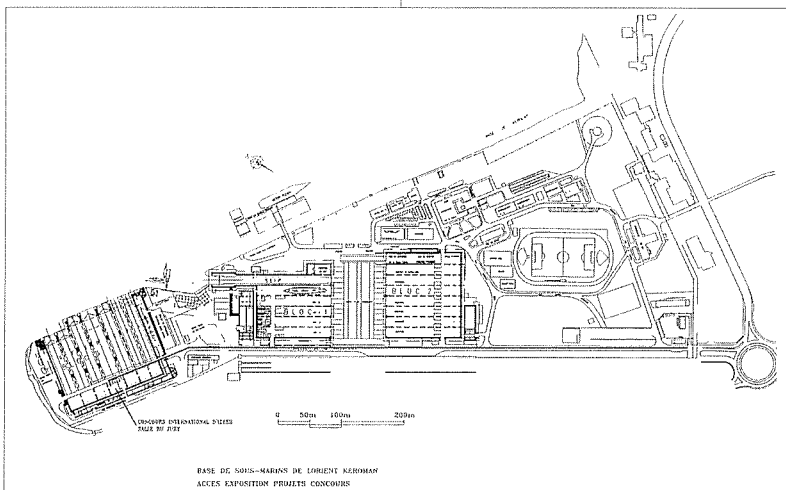


프랑스 Lorient 잠수함기지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강석원(그룹가건축)회원 심사위원으로 참여

이번 아이디어 국제 현상공모는 프랑스 국방부의 지원하에 로리앙 계로망 해군 기지 개조를 위한 것으로 '인간과 바다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총 185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에서 21개 작품을 선정하고 2차 공개 심사를 통해 1등, 2등, 3등 각각 1점, 가작 3점 그리고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준가작 3점을 최종 선정하여 지난 7월 9일 발표했다. 심사는 세계 유명 건축가들과 시장, 시의원, 국방부대표, 법률고문 그리고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 강석원(그룹가건축, 한불문화협 회장) 회원이 건축가로서 프랑스 Lorient 국제현상설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장 마스터플랜

◇ 수상자

- 1등
 - Bohdan PACZOWSKI, man-dataire (Luxembourg)
 - Pascal DEBARD, architecte associé (Lorient)
- 2등
 - Enrique SOBEJANO, NIETO-SOBEJANO Arquitectos(Madrid)
- 3등
 - Christophe BOYADJIAN(Saint-Priest)
- 가작
 - Jean-Pierre DÜRIG, Jean-Pierre Dü rig und Philippe Rämi Archi-tekten (Zürich)
 - James CAMPBELL, James CAMPBELL Architects(Londres)
 - Olivier SOUQUET(Paris)
- 준가작
 - Peter BEARD, Landroom (Londres)
 - James HORAN, Design Strategies (Blackrock, Dublin)
 - Nicolò PRIVILEGGIO(Milan)

◇ 심사위원(건축가)

- Mr Henri GAUDIN(프랑스)
- Mr Alexandru BELDIMAN(루마니아)
- Mr Jade Tabet(레바논)
- Mr Suk Won KANG(한국)
- Mr Stephano BOERI(이태리)
- Mr Jordi GARCES(스페인)
- Mr Axel SOWA(독일)
- Mr Stephan LUNGU(루마니아)
- Mr Raci BADEMLI(터키)

강석원 회원,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 주제발표

프랑스학회 99 하계 학술대회에서

지난 8월 9, 10일 양일간에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개최된 프랑스학회 99년도 제15차 하계 학술대회에서 강석원(그룹가건축) 회원은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서 「프랑스의 건축과 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최영한(조선대 불문과), 장성욱(동의대 불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국건축100년전 개막

국립현대미술관에서 8월 31일 개막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에서는 「한국건축100년전」을 마련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0월 28일까지 전시될 이번 행사를 통해 조직위원회는 개항부터 시작하여 지난 100년간 지어진 건물들을 전시하여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의 건축문화의 방향을 제시하여 지나간 흐름속에서 주목할만한 건축환경을 이끌어내어 그것을 세계건축의 흐름과 연결시킴으로써 한국의 진정한 건축좌표를 세워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한다. 이번 전시회의 큰 특징은 개항 이후 100년의 건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총 2.4미터×22미터의 전시패널과 구한말·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희귀 건축 소장자료 공개 및 현대 건축가 소개, 주거문화의 변천, 21세기 대형프로젝트 전, 건축관련 전문잡지 소개, 국내건축대학의 총정리 소개 및 포스터 전시 등을 통해 한국건축 100년의 기록정리와 미래방향 설정에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있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총정리한

이번 전시는 건축학도,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일반인에게 뜻깊은 체험과 공부가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9월 29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대강당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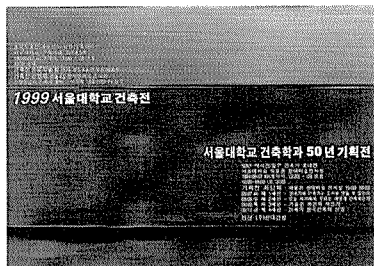
99 건축가 미술전 개최

10월 22일부터 협회 전시장에서

99 건축가 미술전(회장 한창진)이 건축 문화의 해를 맞이한 올 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협회 아키텍트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축에 관계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 판화, 조각 등이다. 참가비용은 20만원이며, 참가신청은 9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문의: (주)중원엔지니어링(02-538-7308, 최한호소장)

서울대, 50년기획전 및 99건축전 개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50년 기획전과 99건축전을 마련한다. 50년 기획전은 50년 역사전과 젊은 건축가 초대전으로 구성되어 서울대 박물관 현대미술

전시실에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99건축전은 졸업작품전, 과제전, 대학원전, 동아리전으로 구성되어 서울대 건축학과 35동 4, 5층에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시된다. 또한 전시기간 동안에 좌담회와 강연회가 함께 열린다.

기획전 좌담회(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 15:00~18:00)

9월 7일(화) 제1세션 / 21세기에 건축가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

- 9월 8일(수) 제2세션 /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축하는가

- 9월 9일(목) 제3세션 / 기술은 환경의 적인가

- 9월 17일(금) 제4세션 / 21세기 한국 건축의 전망

건축전 졸업작품 평가회(35동 4층 전시실, 9월 6일(월), 10:00)

건축전 강연회(35동 4층 전시실, 9월 10일(금), 14:00)

- 건설산업의 21세기 준비 / 이규재 대림산업(주) 상무

서울건축학교, 99여름 워크숍 전시, 공개강좌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건축학교에서는 작년 제주여름워크숍에 이어 전북 무주군 무주읍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50여개의 대학에서 참가한 120여명의 학생들과 30여명의 건축가가 참여하는 여름워크숍을 개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의 구체적 이해와 현실적 대안의 제시를 목표로 건축가와 학생들로 구성된 11개의 스튜디오가 운영되어 스튜디오의 결과물이 전시된다.

전시일정 /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 서울건축학교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 무주 군청

스튜디오

- 권문성(아트리에17) - 김승희(경영위치) 무주에 대한 독해 / 강과 직각 방향의 가로들

- 김인철(아르키움) - 한만원(한도시건축) 새로운 도시구조 제시 / 남대천과 무주읍의 연계

- 김석운(김건축) - 김홍일(위드건축) 축제의 장소 / 읍내입구의 버려진 옛 관청건물

- 김영섭(김영섭도시건축) - 헬렌박(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헬렌박건축연구소) 현재성을 간직한 도시의 장소성 / 시장터 진입부분

- 김 원(광장건축) - 김 현(에다건축) 무주성에 대한 규정 / 예술가를 위한 격리된 거처

-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기오현) - 민선주(경기대건축전문대학원/위가건축) 3차원 도시공간 창출 / 길, 강변도로, 고수부지, 물, 다리

- 오성훈(공간사) - 임재용(OCA 건축) 도시의 확장예측 / 남대천 남쪽 일대 읽기

- 서혜림(himma건축) - 조성룡(조성룡 도시건축)

무주 "이야기 읽기" / 정보관

- 승효상(이로재) - 정기용(기용건축) - 진 정(전북대건축공학과)

무주읍의 주변부와 느슨한 경계들 / 무주인의 공간인식지도 그리기

- 최문규(가아건축) - 황두진(t.s.k건축) 무주의 현재와 근미래 / 무주에 잠재하는 특성의 발견과 언어의 창출

- 최 욱(kpc, 최욱건축연구소) - hiroshi innami(innami synthesize planning) regional attractions identity pride / communication networks

금요세미나(저녁 7시 30분)

- 9월 17일 김민수(디자인 문화비평 편집인) / 공간 언어로 본 이상(李箱) 시

- 10월 1일 김광수(팀-반 도시건축연구소) / 서울의 예기치 않은 부산물들

- 10월 29일 승효상(이로재) / 빈자의 미학(수백당, 웰컴사옥)

- 11월 5일 이소영(서울대 음악대학 오페라연구소) / 오페라에 대한 이해

- 11월12일 testuo fufuichi(furuichi & associates)

2000 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 개최

2000년 4월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2000년 4월 「2000 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 공모전은 올 해 건축문화의 해를 계기로 건축분야의 독창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축분야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보급하여 궁극에는 건축분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분야로는 건축분야의 설계, 시공, 구조, 설비, 교육 등 건축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공모작품은 건축분야 창작품(설계작품), 건축관련 정보기술, 건축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등 건축과 관련된 주제이면 출품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그룹으로 만든 작품을 주 대상으로 하고, 교수 및 실무자의 작품, 후원사의 건축관련 콘텐츠를 지명 초대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999년 9월부터 시작되며, 작품접수는 2000년 2월, 작품심사 및 시상은 2000년 4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시하고 CD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작품은 HTML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디지털화된 글, 도면, 모형사진, 3D 모델 등을 기반으로 VRML, QTVR, Database 등의 다양한 기능을 부가하여 만들 수 있다.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의 40여 대학이 참가 예정이며, 건축관련 공공기관, 언론매체, 정보화 관련회사 등이 이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문의: 2000디지털 건축컨텐츠 공모전 운영위원회 (02-971-2505) <http://cric.snu.ac.kr/dac2000>

제35회 경기건축대전

10월 28일 접수

올 해로 35회를 맞는 경기건축대전에 작품을 공모한다. 한국건축가협회경기도지회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28일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작품 접수를 받는다. 1작품 3인 이내로 학생은 패널(900×1,200~1,800), 모델(1,000×1,000내외)과 작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성작가 작품패널은 임의규격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11월 1일 발표된다.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과천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수상작에 대한 전시가 있을 예정이며, 11월 1일 건축학술세미나도 열릴 예정이다.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경기도지회 전화 0331-238-7480

경기대 건축 전문대학원, 2000년도 신입생(전기)모집

9월 27일(특별전형), 11월 1일부터(일반전형) 원서교부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2000학년도 전기 신입생 50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입학원서, 4년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1부, 대학성적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남학생은 초본)1부, 사진(5×5.5)3매를 제출하면 되고, 일반전형은 특별전형 서류에 포트폴리오(작품집)를 첨부하면 된다. 문의: 02-390-5245,6

유형	지원대상	학위과정	입시방법	원서교부,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특별전형	학부 건축 전공 졸업(예정)자	M.Arch II (건축학석사 2년과정)	영어 및 실기 (해설포함)	99.9.27(월)~10.7.(목)	99.10.8(금)	99.10.12.(화)
일반전형 전공졸업	학부 건축 전공 졸업(예정)자	M.Arch II (건축학석사 2년과정)	포트폴리오 및 실기 (해설포함)	99.11.1.(월)~11.11(목)	99.11.12(금)	99.11.16.(화)
	학부 건축 비전공 졸업(예정)자	M.Arch I (건축학석사 3년과정)				

제2회 울산건축대전

8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등록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는 울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처용과 암각화를 주제로 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울산이 처용설화를 간직한 도시로써 명목만 유지되고 있고, 세계적인 암각화마저 보존문제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향토문화유산으로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행사의 일환으로 반구대 암각화 맞은편에는 전시 및 공연장을 마련하여 처용과 암각화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전시하게 된다.

- 응모자격: 국내외 대학(원), 건축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건축관련 분야 종사자(1팀당 2인 이내)
- 작품요강: 주제에 대한 해석과 아이디어, 전개 과정들을 자유롭게 상세하게 설명한 작품설명서를 A4 3매 이내로 작성, 도면은 60cm×90cm 2매, 모형은 90cm×90cm×60cm
- 등록기간: 1999년 8월 20일~11월 10일
- 등록처: 한국건축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 현장답사: 1999년 9월 19일 10시
- 작품접수: 1999년 11월 11일
- 작품제출: 울산문화회관 제1전시장
- 문의: 052-274-7905

제29회 대구건축대전

11월 29일 작품접수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대구지회에서는 제19회 대구건축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내 거주자가 참여하는 일반공모작품전과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원이 참여하는 건축작가초대전으로 나뉘어 열린다.

- 원서교부 및 접수: 1999년 9월 15일 ~ 10월 13일

- 작품접수: 1999년 11월 29일 10시 ~ 13시

- 작품요강: 일반작품공모전/패널 90cm² × 180cm², 모형90cm² × 90cm² × 90cm²
건축작가초대전/패널 90cm² × 180cm²

- 원서교부처: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사무국(건축사회관 2층)

- 작품제출처: 대구문화예술회관 일반1 전시실

- 문의: 053-753-8731

(주)서울포럼,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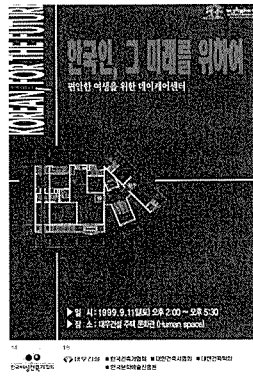
건축가 승효상, 함인선 초청

도시건축웹진 아크포럼을 운영하는 서울포럼은 「건축은 반역이다」의 저자 함인선(인우건축)과 「지혜의 도시, 지혜의 건축」의 저자 승효상(이로재)을 초청하여 9월 18일 14시부터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사회는 김진애(서울포럼)씨가, 패널로는 지정우(JAD디자인연구소), 김선영(건축인), 이용범(건축인)씨가 참여한다.

문의: 02-514-9838

여성건축가협회, 심포지움 개최

'한국인 그 미래를 위하여' 주제로



여성건축가협회에서는 「한국인, 그 미래를 위하여-편안한 여생을 위한 노인데이케어센터」라는 주제로 9월 11일(토) 오후 2시부터 대우건설주택문화관(Human Space)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윤희순 여성건축가협회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한국노인의 정서적 특성과 행동양식을 고려하여 현실에 적합한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제안하여 노인복지건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로는 「재가 노인복지현황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김정석(보건복지부 노인보건과장)씨가, 「노인요양을 위한 복합적 환경의 구성」에 대해서 오은진(준명노인환경연구소 소장)씨가, 「사회적, 신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노인홈의 주거시설에 대한 건축적 대응」에 대해서 김병훈(경남기업실버사업부 기술팀장)씨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현황답사 및 설계대안」에 대해서 김수경(건축사사무소 나눔경 소장)씨가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배시화(경원전문대 교수, 좌장), 김미혜(이화여대 교수), 변재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장애인 정책개발센터 소장)씨가 참여한다.

경원대, 졸업작품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경원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열세번째로 맞이하는 졸업생들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영동 애맥화랑에서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4년간의 건축에 대한 고민과 아픔, 그리고 아쉬움을 털어놓은 자리로 건축학과 졸업생들의 4년간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다.

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추진위원회, 문화유산 봉사활동

울산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99건축문화의 해 울산지역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충신)에서는 울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협조하여 지난 8월 17일 통도사, 울산향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행사는 울산지역 초·중·고 학생과 울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울산대대학원생, 한국건축가협회 울산지부 등 73명이 참석하여 99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청소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건축문화에 대한 답사를 통해 고장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됨은 물론 이를 통해 역사와 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제3차 NG포럼

게스트로 이공희(원도시건축 실장)

건축발전연구소에서는 오는 9월 17일 (금)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월간 POAR사무실에서 원도시건축의 이공희 실장을 게스트로 초대, 제3차 NG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Lightness」로 20세기말 건축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에서의 Lightness를 가지고 소장 건축가 이공희씨의 실무 경험과 외유를 통해 확인된 건축경향을 짚게 된다. 문의: 건축발전연구소(02-2637-3890)

건축신문, 「approach」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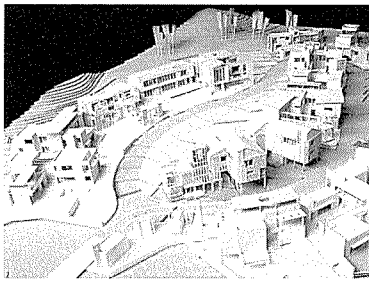
건축발전연구소에서 타블로이트판으로

건축발전연구소(소장 전진삼)가 타블로이드판의 건축신문 「approach」를 시험판으로 발간했다. 지난 8월 20일 첫호 1쇄 500부 16면으로 선보인 이 신문은 월단위로 간행예정이다. 매월 시행하는 NG포럼의 발표내용의 게재와 건축 잡지 및 인터넷 잡지의 공식적인 리뷰의 장이 준비되고, 학문적 성취도가 높은 주요한 논문의 내용소개와 전통건축 읽기, 건축의 소설적 구성, ART다이올로그 등이 눈에 띈다. 또한 건축인들의 이메일 디렉토리를 파악하여 공급함으로써 정보 통신시대의 네트워크 확장도 도모하고 있다. 무가지인 이 신문은 후원회원 등록을 받고 있으며, 후원금은 1구좌 1만원 이상이다.

문의: 건축발전연구소(02-2637-3890)

(주)건축동인, 「주북동 모여살기전」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사동 갤러리카페 ALLEE에서



젊은 건축가들로 이루어진 (주)건축동인이 올해 초 용인지역에 위치한 전원주택 용지 3천여평의 설계를 의뢰받아 함께할 것을 다른 젊은 건축가들에게 제안함으로써 시작된 프로젝트, 「주북동 모여살기」는 전원주택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시회를 마련,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신사동 갤러리카페 ALLEE에서 개최한다. 이 프로젝트는 건축가 12인과 조경작가 2인이 참여하여 일주일 1회씩 총 19차 워크숍을 거치며 안을 확정하였다. 마스터플랜은 도시건축 스튜디오 일로에서 기본안을 제안하였고, 토론과 건축주의 협의를 거쳐 15개의 필지로 분할, 건축가 9인이 각 1개 필지를, 3인이 각 2개 필지를 계획하고 공동시설물과 조경은 조경작가 2인이 계획하였다. 문의: 02-574-2061

건축신간안내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한국의 풍수리지리와 건축
일본을 걷는다 2
책임감리현장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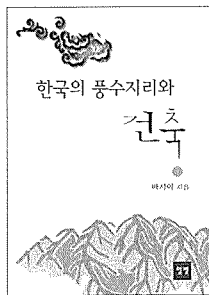


이종건(경기대건축대학원)교수가 우리의 시각에서 해체주의를 해석하고 정리한 책을 냈다. 이 책은 푸는글에서 해체주의건축의 논의를 진행시킬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해체주의건축의 이해에서는 해체주의건축의 정신성을 세가지 시각에서 읽어간다. 공식적 시각으로 해체주의 건축의 이론적 모체인 자끄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과의 연관성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데리다의 해체철학의 비특정성과 논리적 편중을 한계로 지적한다. 두 번째로 통시적 시각으로 러시아 구성주의와 연속성 안에서 논하고 해체주의 건축과 러시아 구성주의간의 건축적 연관성이 형태적차원에 머무르는 편향적 건축시각을 드러냄을 밝힌다.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제3의 이해방식으로 건축에 대한 인간의 인식태도의 변화로 탈인본주의와 탈기능주의로서 해체주의 건축의 전략과 한계를 읽는다. 그리고 군데군데서 해체주의 건축의 정신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가로 김현의 작품을 읽고 있다.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에서는 해체주의 건축이 새로운 형태에 대한 의미행성의 담론을 생산할 가능성을 논하고 앞서의 세가지 이해방식에 동일한 과제를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정신성(침묵의 미학)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담론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체주의 건축의 정신성으로부터

언어야 할 것들은 짜여져 있는 구조들이 행사하는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해방시키고 건축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해체주의 건축에 대한 논의를 맺고 있다.

이종건지음/신국판/277쪽/1만4천원/도서출판 발언(02-929-3546)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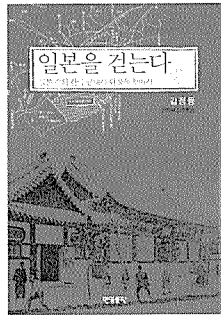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풍수지리는 일반적으로 미신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것은 풍수지리의 이론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 잘못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폐해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풍수지리 이론은 철학이나 과학 이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건축 공학을 전공한 저자가 30여년 동안 연구한 한국의 풍수리지 이론과 그 적용 사례를 담고 있다. 저자는 건축학 박사인 만큼 맹목적으로 풍수지리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 사상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정리하여 한국적인 건축이론을 만들었다. 더욱 객적이고 생기있는, 다시말해 좋은 기운이 살아 움직이는 집을 짓고, 그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있게 살아가는 것이 풍수지리 연구의 목적이며, 이 책이 있어야 할 이유이다. 이 책은 풍수지리의 구성요소를 용, 혈, 사, 수, 방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풍수지리 이론을 건축학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또한 풍수지리에 관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축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관점을 제공한다.

박시익지음/신국판/432쪽/2만원/도서출판 일빛(02-711-7075)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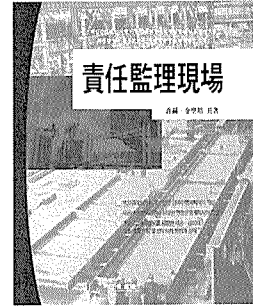
◆일본을 걷는다2



김정동(문화재전문위원, 목원대 건축학과)교수가 '일본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을 찾아서' 라는 부제로「일본을 걷는다2」를 냈다. 이 책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 일본 속의 한국 근대사 현장들을 찾아다니며 지워진 역사의 한 컷을 고발하고 복원해내고자 한 결심이다. 1권 출간 후 수많은 재일동포들과 국내 독자들에게 새로운 역사서로 각광받았기에 저자의 집필 작업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은 오래된 신문이나 문서보관소의 흐릿한 기록들, 몇몇 사람의 증언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사의 현장이나 건물을 근대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일본 도도부현을 발로 뛰는 다리품을 마다하지 않았다. 1부「도쿄, 질곡의 공간」은 세계적인 도시인 도쿄 속의 우리 역사 현장 찾기이며, 2부「역사 상징의 조작과 은폐」는 우리의 문화를 일본이 어떻게 이용하고 조작했는가, 그 흔적을 찾아가는 답사기이다. 그리고 3부「도쿄밖의 도시, 숙명이 흐르는 공간」에는 역사의 뒀안길에서 잊혀지고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한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동지음/신국판/368쪽/1만2천원/도서출판 한양(0344-916-1402)발행

◆책임감리현장



이 책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저자가 직접 감리현장에서 부딪혔던 일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 현장감있는 활동보고서, 사례개념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현장기술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책임감리원의 의지가 담긴 감리수행계획서의 작성, 시공사 현장대리인의 성실한 현장운영계획서의 작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지향한 시공 감리의 상호 역할 분담 및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감리현장을 중심으로 착수에서 출발하여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저자의 느낀 바를 기술했다.

허 혁·김성배 공저/4×6배판/926쪽/5만원/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발행